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본문 에베소서 1:3-14

0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0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0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0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0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0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0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추석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가족 중에 예배 순서 담당자를 의논합니다.
2. 예배 공간을 마련합니다.
   -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3. 성경책과 가정예배서를 탁자에 놓습니다.
4. 집에 있는 십자가를 탁자 위에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5.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예배 인도자는"

1.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2. 가족 구성원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화목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도록 이끕니다.
4. 가족들에게 가정예배의 목적을 안내합니다.
   -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2025

추석

가정예배서

안양감리교회

추석가정예배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기 도 담당자

성경봉독 에베소서 1:3-14 | 담당자

말 씀 하늘의 신령한 복 | 인도자

온 가족 기도 모든 가족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택하심과 용서하심과
인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변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붙잡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좋으신 하나님 | 모든 가족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 1:3-14

사람들은 보통 건강, 재물, 출세, 자녀의 성공, 인기와 권세 같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땅의 복으로, 언제든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엡 1:3). 이 복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찬송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입니다 (엡 1:4-5)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은 "넌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감에서 벗어나 참된 치유를 얻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만 드릴 뿐입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엡 1:7-9)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용서받은 자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병든 중에도, 실패한 중에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셨습니다 (엡 1:13)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이 찍히면 소유와 안전이 보장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보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는 구원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축복은 인치심입니다.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보혈,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찬송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신령한 복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